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촉구운동 전개

□ 정리/김동진 기자

1949년 한국마사회는 농림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기술 개발과 보급, 말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연구, 축산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의 출연 등 마사회 창립 당시부터 축산발전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그러나 6공당시 마사회법의 제정취지 및 농축산인들의 반대 의사를 묵시한채 비 민주적인 변칙치리로 한국마사회를 문화체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축산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은 감소하였다.

농축산 단체들은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결국 지난 4월 13일 56개의 축산관련 단체의 동의를 통해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마사회를 즉각 농림부로 환원조치하라”고 촉구하고 마사회 농림부 환원 문제는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IMF한파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축산업의 활로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체육부가 개편돼 체육기능은 민간에 이양되고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으므로 마사회를 더이상 문화관광부에 존치시킬 명분이나 목적도 상실됐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일동은 마사회 농림부이관의 당위성을 성명서로 발표하는 한편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관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5월 18일 12시 농단협과 소속 13개 단체, 한농연 등 19개 농민단체가 국회에서 마사회 농림부 이관 등 농업문제 8대 현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동 장소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농림부가 함께한 당정협의에서 한국마사회를 본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할 것 등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사항을 도출시킴에 따라 이날 TV 등 언론에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이 결과에 대해 크

게 환영하고 나섰으나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향후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관을 넘어야하는 어려움을 과제로 남겨놓게 되었다.

따라서 실무추진위원회는 20일 축산회관에서 제1차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국회의원 서약서 받아내기'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마사회 관련조직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가 본 추진위원회에 5월 20일 참가의사를 밝혀오에 따라 참가단체는 본회를 비롯, 60개 단체로 확대하면서 조직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는 '레저스포츠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는 말을 축산쪽에 비중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마사회의 주업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를 한국경마회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 축산인들이 전력투구하지 않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받기시작한 서명운동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지역 축협조합장과 지역내 축산관련단체장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회의원을 방문, 국회의원으로 부터 서약서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회에서도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실무추진위원을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각 지부, 분회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IMF시대에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계인들도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